

『기록되지 않은 노동 : 숨겨진 여성의 일 이야기』

여성노동자글쓰기모임 저, 삶창, 2016

전 수 진*

표지만으로도 세 가지의 궁금증이 생겼다. ‘숨겨진’ 여성의 일이란 어떤 것일까, 온전히 기록되는 노동이 존재하긴 하는 것일까, ‘여성노동자글쓰기모임’은 어떻게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이 책에서는 모두 서른 한 명의 일하는 여성들을 만날 수 있다. 첫 번째 장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들의 일을 ‘노동’이라고 생각해 보지는 못했을, 야쿠르트 아줌마, 행사 도우미, 헬스 트레이너, 여성 대리운전 기사, 톨게이트 요금 징수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두 번째 장은 거의 대부분 여성이 전담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인 산모도우미, 초등 돌봄교사, 방과후 교사, 보육교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간병인의 이야기이다. 세 번째 장은 저자 스스로 소규모 하청공장에서의 노동, 영양보호사, 희곡작가, 중증 장애 여성의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네 번째 장은 여성 중에서도 소수자에 속하는 이주노동자, 미혼모, 시각장애 안마사의 이야기이고, 마지막 장은 자신의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싸우는 학원강사, 호텔 룸메이드, 급식조리원, 보조출연자, 조선소 하청 여성 작업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들은 비정규직이거나,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포

* 순창군청 기록연구소.

장되어 있거나, 파견노동자였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고, 관리자나 서비스 이용자의 반말과 욕설, 성희롱을 견디고 있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혹은 장애인, 미혼모라는 이유로 일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는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며, 그들은 갈수록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노동을 진심을 다해 하고 있었다.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비록 지금까지 내게 그들은 그저 길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의 풍경이었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서비스 제공자일 뿐이었지만,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일을 하고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며 분노와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비정상적인 노동 환경으로 그들을 내모는 국가, 약자를 자신과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할 줄 모르는 사회와 문화에 분노했다. 그리고 내가 지불하는 대가가 합당한 것인지는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당연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여겼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성차별적인 인식과 편견으로부터 나 또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으로는 나의 일과 환경이 그들의 것과는 다르다는 데 안도하면서도, 그렇게 느끼는 내 자신이 다시 부끄러워졌다. 숨겨져 있지 않은 일을 하는 나는 과연, 그들만큼 진심을 다해 일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는가….

이 책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고, 그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을 들여다보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었다.

한편으로 이 책은 기록의 힘을 깨닫게 해 주었다. 책의 여는 글에서는 “10여 년 동안 우리 여성의 일자리가 어떻게 급속하게 파편화되고

배제되는지 목격”하고, “일을 해도 설 자리를 잃고 일하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아 어떻게 고통받는지 함께 겪”으며, “우리 사회 여성들의 일하는 모습을 동시대를 사는 이름 없는 여성노동자들이 기록했다”고 적고 있다. 아마도 거기에는 기록을 통해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실제로 이 기록을 통해 접한 현실을 실마리로 한 기사를 쓰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이 책을 읽는 누군가는 현실에 분노할 것이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것이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 실제로 그들에게 힘이 되고자 할 것이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다. 기록을 통해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누군가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도 있고, 누군가의 현실을 바꾸어낼 수도 있다. 기록은 생각보다 힘이 세다.

사회가 기억해야 할 누군가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기록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기록을 얼마나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고 살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누군가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처지를 공감하며, 상처를 보듬고, 현실을 나아지게도 할 수 있는 힘이 기록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는지, 주위의 삶을 기록하고 나누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게 된다.

이 책을 통해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그 자체로서 드러나지 않았던, 그저 풍경 속 하나일 뿐이었던 서른 한 명의 여성노동자들을 한번쯤은 따뜻하게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아픔과 고통을 공감해 볼 수 있었다. 세상에는 눈 여겨 보아야 할 또 다른 “이름 없고 목소리 없고 얼굴 없는” 삶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그것을 기록으로서 다른 누군가와 나눌 수 있도록, 기록인으로서 다양한 삶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본다. 특히 약자가 더욱 고통 받는 시대에, 내 주위의

소수자, 소외된 자, 기득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기록하고, 사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지, 다양한 기록자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